

2020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적성·인성면접 [수의과대학]

제시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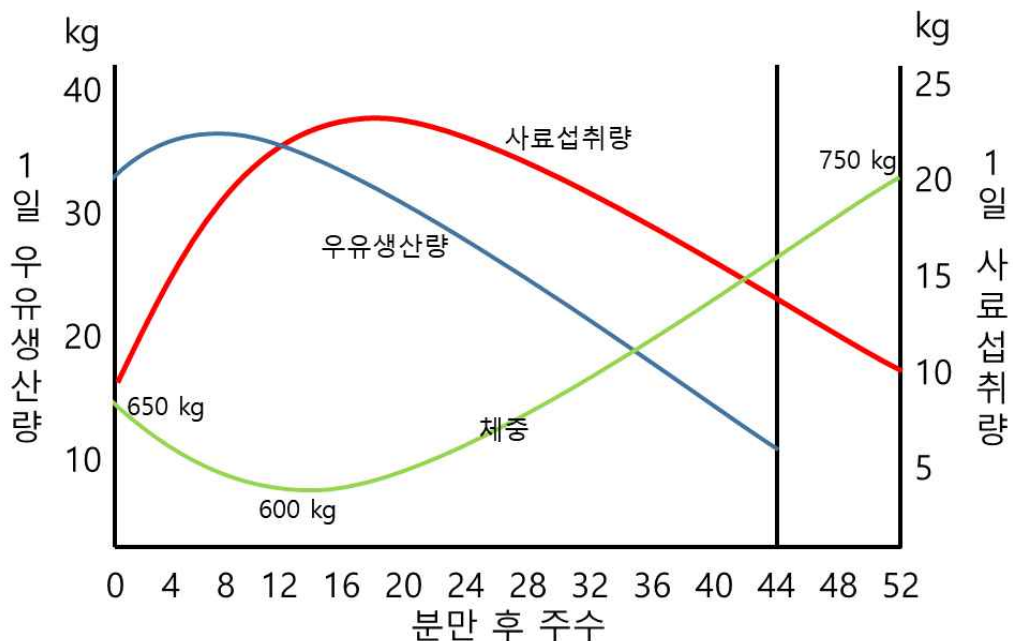
지원자는 미래에 결혼하여 자녀 계획 없이 평생 반려동물들로만 가족을 이루고 행복하게 생활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가 부모는 지속적으로 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자 부부는 양가 부모들의 요구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시문 [2]

지원자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위급한 상태의 개를 안고 보호자(개의 주인)가 방문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이 개가 일주일 전에 지원자와 친한 선배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개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되어 즉시 응급 수술을 진행한 결과, 배속에 남아 있는 거즈를 발견하였습니다. 명백한 의료 사고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제시문 [3]

다음은 젖소가 송아지를 분만한 후, 주 단위에 따른 1일 우유생산량, 1일 사료섭취량 및 체중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의과대학]

제시문 [1]

1990년대 후반 미국 교육부는 아이들의 학업성취도와 성별, 가족구성, 부모의 교육수준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했다.

한 연구자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여 ‘집에 책이 많은’ 학생의 학업성적이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 ‘부모가 거의 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집단에서 특별히 학업성적이 높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제시문 [2]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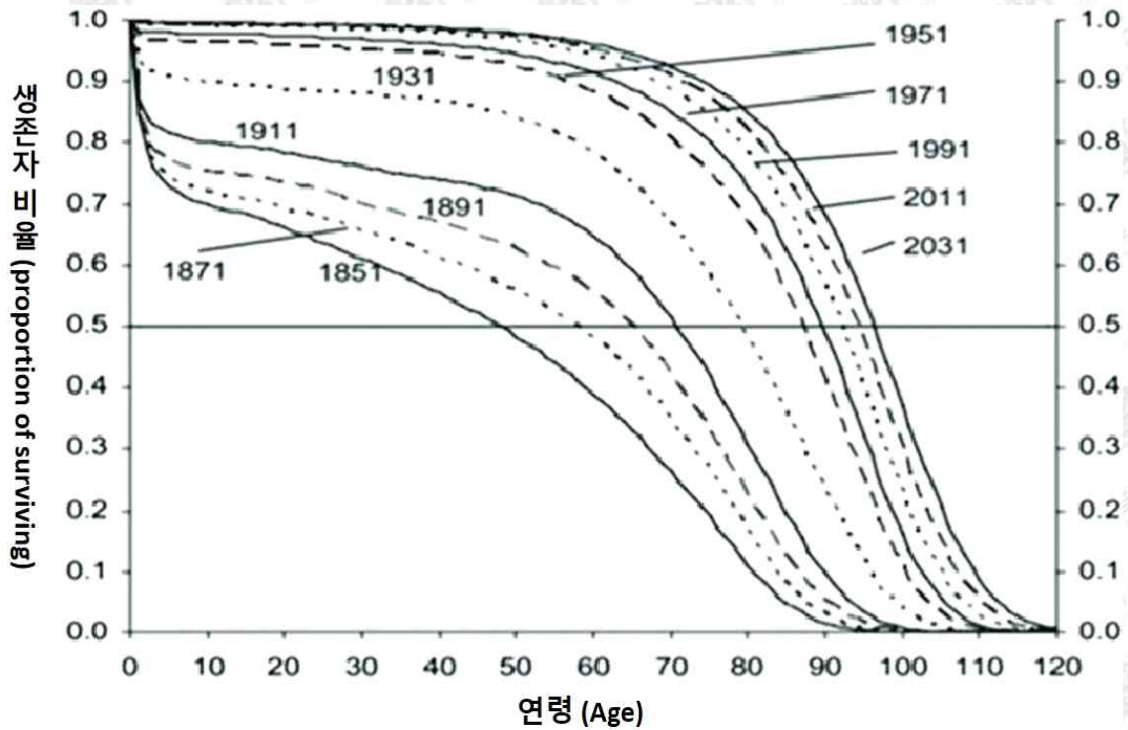
나는 복숭아와 살구를 즐기는데 그것들이 맨 처음 중국에서 한(漢) 왕조 초기에 재배되었다는 것, 카니스카 대왕에게 볼모로 잡혀온 중국인들이 그 과실들을 인도에 소개한 이후 페르시아로 퍼져 나갔으며 기원 후 1세기에 로마제국에까지 당도 했다는 것, 살구가 일찍 익는다고 해서 ‘apricot (살구)’란 말이 ‘precocious (발육이 빠른, 조숙한)’이란 말과 동일한 라틴어 어원에서 파생됐다는 것, 그런데 어원을 잘못 아는 바람에 실수로 a자가 맨 앞에 덧붙여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나)

대학 발전을 위한 전략의 첫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실용전략이다. 19세기에 세계 최강국이던 영국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에 자리를 내준 것은 영국대학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영국 내에서 있었다. 미국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발전, 특히 서부개척과 더불어 철도, 건설, 환경, 농업, 축산 등 사회발전을 위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 발전했는데, 영국에서는 당시 여전히 교양 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대학의 지속적 발전에 있어서 사회발전과 변화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학문의 개발이 중요하다.

제시문 [3]

아래 그래프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1851 년~2031 년 출생자 및 출생예정자의 생명표 분석 자료이다.



제시문 [4]

당신은 피자 가게 사장입니다. 5 명의 직원과 함께 피자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직원은 피자를 만드는 사람 3 명, 배달원 1 명, 직원과 매장을 관리하는 팀장 1 명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이라 지역아동센터에 피자 20 판을 만들어 봉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음의 4 가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1) 오늘 매우 장사가 잘 되어 봉사하러 갈 피자에 올릴 10 판 분량의 치즈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래하던 재료 공급 업체에는 남은 물량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2) 오토바이로 배달하러 나간 직원이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차량 운전자와 함께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3) 어제 피자를 배달받았던 손님이 피자를 먹고 한 차례 구토를 했는데, 재료가 상해서인 것 같으니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배달 앱의 리뷰 란에 공개적으로 글을 남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 4) 집에 있던 가족이 전화를 해서, 당신의 중학생 자녀가 오늘 학교에서 친구를 다치게 해서, 친구 부모님이 당신과 통화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제시문 [1]

〈제시문〉

교육에서 평가는 왜 필요한가? 평가는 교육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교육 과정으로서의 평가가 아니라 교육 결과로서의 평가다. 만약 일정한 교육을 마친 후 성취의 수준과 획득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진행된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 교육의 목표와 과정이 잘 이뤄졌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성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그 평가는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넘어 무언가의 ‘선발’과 연결돼 있다.

선발과 연결된 평가의 최고 가치는 공정성과 변별성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 같은 가치들에 대한 강조는 평가를 그 본래의 출발점인 교육으로부터 유리시킨다. ‘변별’하고 ‘공정’하기 위한 장치들이 교육의 한 과정이자 매개인 평가를 교육에서 독립된 자기 목적의 무언가로 계속 탈바꿈시키기 때문이다.

출처 :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박지현 교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일부 발췌 및 요약

〈사례〉

프로젝트 101 과목은 출석, 조별 활동에 의한 수행평가, 지필고사 등의 통합 평가 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은 ‘우수’, 70점 이상이면 ‘통과’, 70점 미만 시 ‘미흡’의 절대평가를 시행한다. 가영은 중간고사, 개인 수행평가 등을 열심히 수행하여 현재 70점을 획득하였다. 향후 기말고사와 조별 수행평가를 통해 20점 이상 획득하면 ‘우수’를 받을 수 있다. 가영은 프로젝트 101 과목은 이미 ‘통과’에 필요한 점수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다른 미흡한 과목에 대한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영은 중간고사 이후 프로젝트 101 과목에 대한 공부를 중단하고 출석하지 않았으며 해당 과목에 대한 조별 수행평가 활동도 참여하지 않았다.

제시문 [2]

우리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호모 사피엔스의 후예들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영장류에 속한다. 영장류 동물은 포유류나 파충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집단을 이루어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왔다. 한마디로, 영장류는 ‘유아독존唯我獨尊’이 불가능한 종이다. 그 중에서도 호모 사피엔스는 가장 크고 복잡한 사회 네트워크를 지닌 덕분에 사회성이 가장 강력한 종으로 진화했다. (중략)

한 개인의 인생사에서 사회성이 어떻게 발현되든지 중요하지만 그런 사회성의 집합체가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는지는 더 큰 화두다. 최근 들어 다수의 영장류학자는 인간의 독특성이 탁월한 지성의 사회적 측면에 있다고 주장한다. 타 개체의 마음을 잘 읽고 대규모의 협력을 이끌어 내며 타 개체로부터 끊임없이 배웠던 인간의 독특한 사회적 능력이 우리를 지구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즉, 유일하게 호모 사피엔스만이 꽃피운 ‘문명’은 사회성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사회성을 나는 ‘초사회성 ultra-sociality’이라고 부른다. (중략)

인류는 초사회성을 바탕으로 문명을 건설했고, 문명은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즉, 인공지능을 만든 힘도 초사회적 능력에 있었다. 하지만 우리를 지구의 정복자로 만든 그 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회적 인공지능 앞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과연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울트라 소셜은 호모 사피엔스의 성공 스토리이자 묵시록이다.

출처: 울트라 소셜(서울대 장대익 교수)

제시문 [3]

〈제시문〉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타인의 생각이나 마음 상태를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인지적 공감이라 하며,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를 공유하고, 정서 상태 표현에 반응하는 능력을 정서적 공감이라 한다.

〈사례〉

대학생인 민서, 형석, 지호는 수업에서 공동과제를 같이 수행하게 되었다. 과제의 내용은 실물경기에 대한 상인들의 인식 조사이며, 이를 위해 직접 시장에 찾아가 상인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교수님이 설문대상 상인의 수를 60명으로 설정하였으므로, 팀원 한 명당 평균 20명은 조사해야 한다. 지호는 다리가 불편하여 설문 조사 자체가 쉽지 않은 형편이며, 주어진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 설문 준비를 위한 팀원 모임에서 민서는 교수님께 찾아가 지호의 건강상태를 설명하고, 설문대상 인원을 40명으로 줄여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한다. 형석은 그대로 60명을 조사하자고 한다. 지호는 의견을 내고 있지 않다.